

# 포스트모던 문화와 기독교

송태현/ 외국어대 불어과 강사

## I.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래

기독교는 정신적인 진공(眞空) 속에서 수용되고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는 기존의 사상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대결하는 가운데 그 문화를 형성한다. 서양에 전파된 이래 기독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그리고 영지주의(靈知主義, Gnosticism)와 상당한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어 왔다. 플라톤과 동방 종교(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대결하면서 초대 교회가 자라왔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로 대표되는 중세의 가톨릭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실증주의와 과학주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현대에 이르러, 기독교는 이성과 과학의 권위를 앞세운 모더니즘의 도전에 맞서야 했다. 성경의 역사성(historicity)에 의문을 품고, 기독교의 초자연적(supernatural) 요소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신학적 모더니스트들의 도전에 기독교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더니즘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날 기독교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이라는 사조(思潮)를 맞이하게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제 모든 학문과 예술 분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이 시대의 주된 사조로 자리를 잡았다. 이 사조는 한편으로 기독교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해온 모더니즘의 무기인 과학과 이성 자체를 상대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모더니즘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모든 절대적인 진리와 거대 담론(metanarrative)을 거부함으로써 기독교 진리의 절대성도 위협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오늘날 우리의 사상과 문화가 자라고 있는 토양이다. 이 표현은 물론 포스트모더니즘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사조라는 말은 아니다. 모더니즘의 반격도 만만치 않으며 새로운 사조들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는 사상가와 예술가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조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스트가 아닌 사람도 이 사조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만큼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철학·사회학·문학·건축·미술·음악·영화·무용·신학·자연과학 등 거의 모든 학문 예술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어 그 특징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혹자는 단절을 강조하고, 혹자는 연속성을 더 강조한다. 그리고 ‘모더니즘’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도 문제인데 이는 각 학문과 예술의 각 영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학에서 말하는 모더니즘과 철학에서 말하는 모더니즘을 동일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렇듯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개념은 매우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총체적인 모습을 한 개인이 정확히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에 많은 논쟁이 야기되기도 했다. 단

순화의 위험을 감수한 채 우리는 거시적(巨視的)인 관점에서 포스트모던 문화에서 진행되는 현상들 속에서 두 가지 특질을 포착하여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그 두 가지란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혼용, 이미지 중심의 문화로서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비판하고 수용해야 할 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만남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이전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존재했던 장르들간의 경계가 무너진다. 가령 모더니즘 문학에서 창작과 비평이 명확히 구분되고 각각의 문학 장르(시, 소설, 수필, 희곡, 비평)간에 엄격한 구분을 유지해왔다면, 포스트모던 문학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문학 내에서 각각의 장르를 혼합하여 사용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문학과 비문학 간에도 명확한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특히 문학과 역사 사이의 경계가 그러한데 뉴저널리즘 소설, 사료편찬적 메타픽션(historiographic metafiction) 등은 역사가 글쓰는 이의 주관에 따라 굴절 혹은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허구(fiction)와 사실(fact)간의 구분마저 위협하고 있다. 우리 전래 음악과 서양 음악의 만남도 이젠 꽤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의 가장 거대한 모습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대중문화) 사이에 진행되는 혼용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엘리트와 민중들이 즐기는 예술에는 명확한 구별이 있어왔다. 신분에 따라 향유하는 문화는 고정되어 있었고, 양자간의 문화적 접촉은 없었다. 서양의 신분 사회에서 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도 양반문화와 향민(鄕民)문화의 구별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두 문화 사이의 이러한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에서 비틀즈의 음악을 연주하고, 플라치도 도밍고와 존 템버 그리고 박인수와 이동원이 이중창을 부른다는지, 파바로티가 대중 가수들과 함께 ‘파바로티와 친구들’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협연을 해나가고 있다. 미술에서도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과 앤디 워홀(Andy Warhol) 등은 소위 ‘순수 예술가’로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 사이를 가로막는 울타리를 제거하고 대중예술적인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도입하여 팝아트(pop art)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탄생과 더불어 줄곧 대중예술로 분류되어왔던 영화에서도 순수예술의 진지함과 수준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타르코프스키, 펠리니, 쿠로자와, 배용균 감독들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가 지니는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맥락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필요하다.

원시 시대의 예술에서는 아마도 문화 용품(그림, 조각, 악기 등)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다. 모두가 생산에 동참하고 함께 향유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예술은 상업과는 무관한 활동이었을 것이다. 왕족과 귀족의 계급이 정착되면서 신분과 재력의 차등화와 함께 문화 예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양의 예술가는 대개 왕이나 귀족에게 소속되어 있었다. 이들의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대신에 예술가들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궁정에서 혹은 귀족의 성(城)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patron)의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실내 장식을 해준다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 실내악을 작곡하거나 연주해 주었던 것이다.

18세에 들어와 부르주아 계층의 부상과 더불어 예술은 일대 혁신을 맞이한다. 예술의 주도권이 왕실과 귀족에서 시민계급으로 이행한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오면 패트런 제도가 사실상 끝이 나 예술가는 더 이상 개인적인 후원에 의지하지 않고 다수의 부르주아 계층에게 문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제 예술가는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분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예술의 취향에서도 장식 대신에 (감정 혹은 내면세계의) 표현을 추구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 패트런의 주문에 의한 실용적인 목적예술에서 순수한 표현예술로 발전함으로써 천재(天才)와 창조성이 강조되고, 이로써 예술과 예술가의 사회적 위상이 상승되며, 이러한 전통 속에서 서구의 소위 ‘고급 문화(high culture)’가 형성된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서구에서 예술은 또 한 차례의 변혁을 맞게 된다.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문화를 향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력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노동자 처우 개선과 함께 노동자도 문화를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고 이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문화들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중문화(mass culture)이다. 예술 교육을 충분히 받고 문화를 향유하는 귀족과 부르주아와는 달리,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곤한 노동으로부터 기분전환을 원하는 이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문화가 높은 예술성과 심오한 정신 세계와는 거리가 먼 것일 수밖에 없다.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사진과 축음기의 발명은 예술작품의 기술적 복제(複製)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대량 생산으로 이어져 대중문화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닌다.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보다도 문화의 민주화이다. 궁정에서나 귀족의 살롱에서 특수 계층만이 실내악을 즐겼다면, 그리고 그후로는 부르주아 이상의 계층만이 정장 차림을 하고 거의 종교적인 엄숙함을 지니고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었다면, 오늘날은 누구나 텔레비전이나 음반을 통해 그리고 대중 공연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며, 거액의 돈을 들여 피카소나 로댕의 작품을 소장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전시회장 혹은 화집(畵集) 등을 통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문화란 저질화, 상업화로 빠져들 위험을 안고 있다. 민속문화의 전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대중매체에 주로 의존하는 시대에, 좀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즐기는 문화는 좀더 즉각적이고 피상적이며 자극적인 문화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가 발달할수록 대중문화가 대중 자신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문화가 되기보다 대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자, 즉 매체를 소유한 거대자본에 의해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의 방향으로 조종당할 위험이 높다. 일찍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선도자들인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와 아도르노(Th. W. Adorno)는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 이러한 배후 조종을 하고 있음과 대중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만들기를 비판한 바 있다. 아도르노는 “문화산업론의 재고찰”에서 기술 진보의 역설을 이렇게 말한다. “문화산업의 전체적인 효과는 ... 자연에 대한 진보적인 기술의 우위를 나타내는 계몽이 대중에 대한 속임수가 되고 의식을 속박하는 수단으로 변하는 반계몽의 하나이다.”

물론 대중문화가 온전히 문화산업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대중문화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우려대로만 전개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통찰은 날카로웠고 대중문화와 관련하여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비판임에 분명하다.

대중문화의 이러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의 공존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함께 만나는 포

스트모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실 수준 높은 고급문화는 문화 엘리트만이 향유할 수 있다. 괴테의 『파우스트』를 이해하고, 타르코프스키나 피카소의 작품에서 감동을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다. 모든 대중에게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포스트모던 문화가 고급문화적 요소와 대중문화적 요소를 적절히 조화시켜 좀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롭고도 유익하게 감상할 수 있게 만든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가령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소설 『장미의 이름』은 대중소설의 장르인 ‘탐정소설’의 형식을 빌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동안에 독자들은 서구 철학사와 중세 교회사, 그리고 (작자가 그 권위자인) 기호학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우리가 (고급 취향의) 모더니즘 문화에 대비해서만 포스트모던 문화를 고찰한다면, 이 경우는 분명 대중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잇따른 저질성과 상업성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모더니즘이 지식 사회에서 주류 문화를 형성하던 시대에도 대중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많은 대중들이 이를 즐기고 있었다. 오늘날 대중문화가 고급문화를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급문화만을 고집한다면 고급문화를 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문화적 국외자로 남아있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이란 ‘복된 소수의 사람들에게(To the happy few)’ 만 주어진 것인가? 대중들을 포섭할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이분법(二分法)을 극복하는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장점을 지닌다. 우선, 대중을 문화예술에서 소외시키지 않는다. 대중에게서 타락을 구실로 대중문화를 빼앗는다면 더욱 타락한 문화적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중도 주류 문화에 동참시켜야 한다. 둘째, 문화적 엘리트가 대중문화의 ‘저질성’을 비판만 하는 대신 대중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 혹은 비평에 종사할 때 그는 대중문화의 ‘수준’을 높이며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게 된다. 셋째,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이분법은 계급 사회의 소산이다. 계급의 붕괴와 함께 이분화된 두 문화도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I. 이미지 중심의 문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 이후 점차로 책이 보편화되면서 서구에서는 ‘인쇄 매체 시대’를 맞이한다. 텍스트 읽기와 쓰기 교육을 중시해온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동시에 권위 있는 매체는 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활자’는 ‘전자 영상’에게 왕위를 양도하고 있다. 미디어론(médiologie)의 권위자인 프랑스의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가 그의 저서 『이미지의 삶과 죽음』에서 한 다음과 같은 말은 시대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60년에는 ‘교양 있는’ 두 사람이 만찬회에서 만나면 그들이 ‘읽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1990년에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더니티는 본질적으로 문자 중심 문화와 합리주의를 추구해왔고 이미지를 평가절하하고 억압해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가 경시해온 영역인 상상적 세계와 이미지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제 이미지는 문자 문명의 편향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는 단계를 넘어 범람하기에 이르렀고 이미지의 범람은 포스트모더니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이 60년대에 예언자적으로 선언한 ‘활자매체의 죽음’이 이제는 허황된 소리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개신교회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활자매체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자라왔기 때문이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한 서적도 성서였으며, 영어·불어·독어를 비롯한 자국어(自國語) 성경 보급도 활자매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가톨릭이 전례(典禮)에서 이미지(시각)적인 요소를 많이 사용했고, 성상(聖像)과 성화(聖畵)를 예배와 기도에서 활용한 데 대해 개신교는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신교는 가톨릭에 비해 성경 읽기와 문서를 통한 교육과 선교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1975년 『개신교 지평 *Horizons protestants*』이라는 잡지가 폐간될 때 리샤르 몰라르(Richard Molard) 목사는 그 잡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개신교는 인쇄와 함께 태어나서 인쇄, 즉 인쇄된 성경, 교리서, 신문 및 잡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이다. 이러한 출판물에 오늘날 위기가 닥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이 누구냐 하는 위기 의식의 조짐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가장 쉬운 커뮤니케이션 형태인 세계에서 개신교도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몰라르 목사는 매체의 혁명적인 변화를 개신교의 정체성 위기와 결부시킨다. 그의 위기 의식은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이며 사태를 과장한 것인가? 그의 위기 의식은 잡지의 폐간으로 인한 과민한 반응으로 인해 촉발되었는지 모르나, 오늘날 개신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임엔 틀림없는 것 같다. 이는 오늘날 텔레비전 뿐 아니라 특히 PC와 인터넷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몰라르 목사 당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매체의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변혁은 개신교뿐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걸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위기는 크게 보아 교회의 위기와 성경 말씀의 위기로 대별해볼 수 있다.

## 1. 전통적인 교회는 사이버 교회로 대체될 것인가?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미지를 과도하게 사용했다. 그 결과 이미지의 주술화와 말씀의 약화를 낳았고,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행한 비판은 정당하다. 개신교는 이미지(시각적인 요소) 파괴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문자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미지에 대한 개신교의 근본적인 불신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의 폭발’은 개신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반 사회에 비해 늦긴 했지만 개신교도 오늘날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처해있다.

이미지에 대한 극단적인 불신과 무조건적인 환대를 넘어 우리는 이미지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뉴 미디어 시대를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교회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이 존재한다. (1) 선교와 교육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 (2) 멀티미디어를 예배에 활용한다. (3) 사이버 교회를 구축한다.

우선, 선교와 교육에는 멀티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으며, 또한 오대양 육대주의 많은 이들이 참가하여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면에서 분명 유익하다. 특히 공산권과 회교권과 같이 기독교에 폐쇄적인 지역을 위해 인터넷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경우에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이

를 통해 기도를 나누고 현지 사정에 대한 정보와 선교의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선교사나 파송 교회(후원자)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영상세대’에 적합한 기독교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둘째로, 예배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 예배와 설교를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가령 설교 때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地名)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 뒤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를 참조하게 하는데, 책으로 된 지도를 보나 영상 매체를 통한 지도를 보거나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따라서 영상 매체 자체를 거부해야 할 이유는 없다. 신구약 시대의 지리와 역사, 그리고 팔레스타인 풍속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말씀을 좀더 생생하고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예배 시에 지나치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보다 영상 자체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므로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이다. 사이버 교회에도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겠으나 전통적인 교회(지역 교회)를 보완하는 형태의 사이버 교회는 매우 유익할 수 있다. 특히 모든 교우들이 설교나 교회 운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이버 교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신도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교회를 대체하는 의미의 사이버 교회, 다시 말해 몸과 몸이 만나지 않고 사이버 세계를 통해서만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교회는 원칙상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사이버 교회와 같은 특수한 예외를 인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장애우를 위한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는 판단이 주저되는데, 이는 장애우가 지역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지역 교회가 적극 도와주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미치지 못하여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많이 존재하는 한 이들을 위한 사이버 교회는 차선(次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전통적인 교회를 대체하는 사이버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한 사이버 교회로 흘러가게 만든다면 이러한 흐름에는 저항해야 한다.

## 2. 성경 말씀의 이미지화는 가능한가?

21세기에 활자 매체는 종언을 고하고 영상 매체만 살아남을 것인가? 문자를 과연 영상이 대체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설사 가능할지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조짐은 보인다. 오늘날 젊은이들, 소위 ‘영상 세대’는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지적을 흔히 듣는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전 세대에 비해서 성경을 잘 읽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영상 세대를 위해서 성경을 이미지화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화한 성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자료일 수는 있으나 성경 자체일 수는 없다. 문자는 영상과 동일시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자와 이미지는 일대일 대응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가령 프랑스의 시인 말라르메가 한 송이 꽃(une fleur)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향기, 모양, 연상이 촉발된다고 한 말을 생각해보자. 만일 한 송이 꽃을 영상화한다면 그것은 백합화든 수선화든 특정의 꽃이다. 하지만 말라르메가 이야기하는 언어적 ‘꽃’은 보편자적인 꽃인데, 이것을 어떻게 영상화

하겠는가? 그리고 문학에 나타나는 많은 수사학적 표현들을 이미지가 온전히 번역해낼 수 없다.

더욱이 성경의 이미지는 영상화가 매우 힘들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문학에서 말하는 이미지의 경우에도) 시각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다. 이 경우에는 문학의 영상화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히브리적 상상력은 토를라이프 보만(Thorleif Boman)과 진 비이스(Gene Edward Veith, Jr.)가 지적하듯이 시각적이기보다는 오히려 ‘폭넓은 연상 작용과 느낌에 호소’ 한다. 구약성경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사랑하는 이의 신체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네 목은 군기(軍器)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望臺)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乳房)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4:3-5)

사랑하는 여인의 뺨이 석류로, 목이 망대로, 그리고 유방이 쌍태 노루새끼로 비유되었을 때 그 어느 경우도 시각적인 비유가 아니다. 뺨을 석류에 비유한 것은 석류의 향기와 맛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목을 망대(보만에 의하면 이것이 전쟁을 위한 방어진지防禦陣地이다)에 비유한 것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품’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8장10절에서는 유방도 망대에 비유한다. 이것은 ‘순결한 처녀의 접근 불가능성’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유방이 노루새끼 같다고 한 것 역시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촉각적인 것이다.

성경은 인물들뿐 아니라 사물을 묘사할 때도 시각적인 외관(外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보만은 “전 구약성서에서 객관적인 ‘사진 같은’ 외관에 대한 묘사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노아의 방주나 광야의 성소(聖所) 제작에 대한 묘사에서도 외양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제작 과정(어떻게 세워졌을까)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 모형들을 온전히 영상화하기는 불가능하다.

성경 말씀을 영상화하는 것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거기에는 말씀 외적인 상상력이 매우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우 간략한 서술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도 외양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경 텍스트를 바탕으로 영상화할 때 이미지 제작자의 주관적인 상상력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른 영상들이 제작될 것이며, 절대성을 확보할 아무런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권위가 확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은 진정한 성경이 아니다. 기독교가 절대적 권위의 담지자(擔持者)인 성경을 양보하지 않는 한, 문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문자를 담는 그릇인 책(종이 책이든 전자책이든) 역시 포기할 수 없다.